



기억·현재 교차하는 순간들, 스크린 위 펼쳐지다

광주극장 4월 개봉작 소개

4월 한 달간 다양한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들이 광주극장 스크린을 채운다. 세계적 거장의 기록부터 동시대 사회를 응시하는 다큐멘터리, 관계와 개인의 내면을 다룬 서사까지 폭넓은 영화들이 관객과 만난다.



영화음악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 기록부터
선저·비상계엄 다큐까지 다양한 시선 담아

먼저, 오는 17일에는 영화 '침묵의 친구'가 개봉한다. 182년부터 뿌리내린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교차해 그린 작품으로, 거장 알도 에네디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한 세기를 넘는 시간 속에서 인간과 자연, 존재의 연결을 사유하는 영화로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을 받으며 주목받았다.

같은 날 개봉하는 '퀸 락 몬트리올'도 눈길을 끈다. 1981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퀸의 전설적인 콘서트를 담은 라이브 시네마로, '보헤미안 랍소디', '위 월 락 유' 등 대표곡을 4K 리마스터링으로 만날 수 있다. 전성기 시절 퀸의 퍼포먼스를 스크린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 다른 개봉작 '힌드의 목소리'는 가자지구에서 구조를 요청한 6살 소녀의 실제 음성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시간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23분간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며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20일에는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이



'류이치 사카모토: 도쿄 멜로디' 스틸컷

개봉한다. 1998년을 배경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은 아들과 제주 1949년의 기억을 마주하는 어머니의 서사를 교차해 그린 미스터리 드라마다. 얽혀난 연기가 극의 몰입을 이끈다. 같은 날 상영을 시작하는 '빨간나라를 보았니'는 경북 지역 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혐지에서 도전과 과정을 밀도 있게 기록했다.

22일에는 '탄 12.3'이 스크린에 걸린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까지의 긴박한 상황을 시간 순으로 따라가는 시네마틱 다큐멘터리다. 같은 날 개봉하는 '새벽의 Tango'는 관계에 서툰 인물이 타인을 통해 다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으로, 김효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25일에는 '류이치 사카모토: 도쿄 멜로디'가 개봉한다. 1984년 도쿄에서 '음악도감' 작업에 몰두하던 영화음악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의 일상과 창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30대 시절 그의 에너지와 1980년대 도쿄의 풍경을 함께 포착한다. 앞서 1일 개봉한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와 함께 그의 '마지막'과 '처음'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획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도 프레디 머큐리 사망 35주기를 맞아 공연 실황을 스크린으로 만나는 작품, 동시대 사회를 다룬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잇따라 상영된다.

상영 일정과 자세한 정보는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유예름 이서영 최혜지

고전부터 현대까지... 피아노 음악 흐름 '한자리'

아르플레넷 2회 정기연주회...25일 ACC서

피아노 선율로 고전의 구조미와 절제, 근대의 섬세한 감성, 현대적 리듬과 색채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클래식 예술단체 아르플레넷(ARPLANE T)은 오는 25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 'Heritage & Horizon'을 개최한다.

2024년 창단한 아르플레넷은 청년 연주자들이 중심이 돼 기획과 연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클래식 예술단체로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음악적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펼쳐왔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15회 이상의 공연을 기획·제작하며 지역 클래식 공연계에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 'Heritage & Horizon'은 음악의 유산(heritage)을 바탕으로 오늘의 시선과 새로운 지평(horizon)을 함께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았다.

무대에는 아르플레넷 소속 피아니스트 유예름, 이서영, 최혜지가 출연한다.

유예름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8번 내림 마장조 작품 31-3 중 1악장 알레그로와 3악장 미뉴에트를 선보이며, 이서영은 스크리아빈 피아노 소나타 제4번 올림바단조 작품 30을 통해 신비롭고 서정적인 음악 세계를 풀어낼 예정이다. 최혜지는 거슈윈의 프렐류드 1번과 볼컴의 우아한 유령을 연주하며 리드미컬하고 감각적인 무대로 공연의 색채를 더한다.

최혜지 아르플레넷 대표는 "이번 공연은 서로 다른 시대의 피아노 음악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관객들이 피아노 음악의 폭넓은 매력을 자연스럽게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네이버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르플레넷 홈페이지 확인. /최명진 기자

광주문화재단, 예술기업 매칭펀드 선정

국비 6천500만 확보 지역 예술 지원 확대
지방비 매칭 1억1천500만 규모 사업 추진

광주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재단 예술기업 매칭펀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재단은 이번 선정으로 국비 6천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를 1대1로 매칭해 총 1억1천5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신설한 것으로, 지역문화재단 매칭 그랜트 사업에 문예진흥기금을 연계 지원해 지역 예술계와 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선정은 재단이 메세나 사업 기반을 꾸

준히 다져온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매칭 자원 확보를 통해 지역 예술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확보된 예산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함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문화예술 분야로 연결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예술과 기업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후원 기반 구축에 나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오는 5월 '2026 광주문화재단 기부금매칭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기업이 지역 예술 프로젝트를 후원하면 재단이 이에 상응하는 매칭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모 관련 세부 내용은 추후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성주곶부터 대동판까지...삶의 맥 잇는 농악 한마당

지산농악보존회 토요공연, 18일 전통문화관

삶과 공동체의 회복을 그리는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8일 오후 3시 토요상설공연 2주차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되는 '맥(脈)을 잇다 - 삶과 공동체를 여는 연희'는 전통연희의 의례적 구조를 바탕으로, 끊어진 기운의 흐름을 회복하는 과정을 풀어낸 작품이다.

출연진으로 나서는 (사)지산농악보존회(사진)는 담양 수북면과 봉산면, 장성 진원면과 지산면 일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악을 보존·계승하는 단체로, 2002년 창립 이후 매년 정기발표회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 2회와 청소년부 대통령상을 수상



하머 전통농악의 가치를 알렸다.

이날 공연은 집을 지키는 신을 모시는 성주곶으로 시작해 하늘과 인간을 잇는 중천맥이, 액운을 풀어내는 액맥이를 거쳐 공동체의 흥과 복을 나누는 놀이판으로 이어진다. 전통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정화, 희망과 공동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최명진 기자

CBS 라디오

아침 시사의 새로운 중심

박성태의 뉴스쇼

월~금 07:10~09:00

98.1 FM

CBS 표준FM

CBS RAINBOW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YouTube